불경기 속 악재 겹친 자영업자 "9월 오는 게 두렵다"

코로나 대출 연장 9월 종료…경영난 여전해 상환 막막
전기료 인상까지 겹치며 요금 부담 20% 넘게 늘어나

"아직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9월 이후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앞이 깜깜합니다. 게다가 전기, 가스 요금까지 인상되면서 경영부담은 더욱 커졌는데, 이러다 문을 닫는 건 아닌가 걱정입니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장됐던 대출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까지 겹치는 등 여름을 앞두고 악재가 이어지면서 지역 상인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광주와 전남지역 자영업자 대출액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8조원을 넘어섰는데,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지역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지역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예금은행 대출액은 지난 2019년 4분기 5조7418억원에서 지난해 4분기 8조7263억원으로 무려 52%(2조9845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저축은행과 같은 비예금은행 등의 대출액을 더하면 그 액수가 두 배가량 될 것이라는 게 지역금융권의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오는 9월 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출 특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만기 연장 조치는 2025년 9월까지 자율 협약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상환유예는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9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지원이 종료된다. 따라서 10월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정상 상환이 시작될 예정이다.

지역의 한 자영업자 A씨는 "상황 유예 조치가 종료 전에 경기가 풀릴 것만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며 "아직 갚아야 할 금액이 수천만원에 달하는데 최근엔 금리까지 높아져 그야말로 죽을 맛"이라고 하소연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전기·가스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중압감은 더욱 큰 상황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3월 전국 외식업체 20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2월 업체당 월 평균 전기요금은 80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66만5000원) 대비 21.1% 늘었다.

업체당 전기 사용량은 7324kWh로 4.8% 줄었다. 그럼에도 전기 요금은 증가했고, 전기요금이 부담이 늘었다고 답한 업체는 전체의 96%였다.

정부는 이달 16일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원(5.3%) 인상했다. 지난해 4·7·10월 세 차례에 걸쳐 총 kWh당 19.3원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전기요금을 역대 최고·최대치인 kWh당 13.1원 올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에 만기 연장에 준해 상환유예를 추가 연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은 아직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매출과 수익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에너지는 2분기에도 전기료는 kW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인상이 확정돼 소상공인 부담은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본격적인 원금 상환을 압박하는 것은 '불쏘시개를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보해양조, 목포에 전국 첫 '플로깅 센터' 오픈

목포여객터미널 인근에 개소
스몰 액션스토어 오픈…캠페인도

보해양조(대표 임지선)는 목포에 전국 최초로 플로깅 체험을 전문으로 하는 '보해소주 플로깅 센터'와 '보해소주 스몰 액션 스토어'를 열고 '스몰 액션'(SMALL ACTION) 캠페인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보해소주플로깅 센터'는 25일 목포여객터미널 인근(목포시 해안로 217-1)에 문을 연다. 목포여객터미널은 흑산도와 홍도 등 전남의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연간 방문객만 약 20만명에 달한다.

보해양조는 여객터미널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배를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해 플로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섬에 들어가는 관광객들은 센터에서 플로깅키트를 받아 관광을 하면서 플로깅에 동참할 수 있다. 참가자들 중 플로깅 사진을 해시태그 'pickup_bohae'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추첨을 거쳐 플로깅과 관련된 굿즈를 제공한다.

플로깅 센터에는 바다에 버려진 유리가 파도에 깨지고 풍화돼 만들어진 '씨 글라스'(Sea glass) 작품들도 전시된다. 이밖에 보해소주 등으로 꾸며진 포토존과 체험존 등도 운영된다.

보해양조는 또 목포 보해양조 본사 인근에도 '보해소주 스몰 액션 스토어'를 연다. 이곳에서는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젠가와 폐어망·그물로 만든 가방 등 해양쓰레기로 만든 다양한 굿즈가 전시 및 판매된다.

목포 보해양조 본사 인근에 문을 열 '보해소주 스몰 액션 스토어'에서 직원들이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젠가 등 굿즈를 선보이고 있다. 〈보해양조 제공〉

각종 쓰레기가 예술품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방문객들이 바다의 중요성을 배우고 쓰레기를 줍는 작은 행동이 바다를 보호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레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지난 12일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 먼저 문을 연 스몰 액션 팝업 스토어를 찾은 분들이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과 스몰 액션 캠페인에 많은 지지를 보내줬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플로깅 센터와 목포 스몰 액션 스토어가 시너지를 발휘해 더 많은 사람에게 해양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기아 'AI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내달 6일까지…연구원·대학생 등 참여 프로젝트형 대회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2023 연구개발본부 AI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제해결 능력을 뽐낼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AI 경진대회'는 현대차·기아 연구개발본부 연구원과 대학(원)생 참여자가 한 팀을 이뤄 실제 연구개발 현장에서 발굴된 문제점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개선하는 프로젝트형 경진대회다.

현대차·기아는 참가자들의 인공지능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사전에 데이터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함께 팀을 이루는 연구원을 대상으로 심도 깊은 교육을 실시하는 등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쳤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AI 경진대회에 총 30명의 참여자를 선발하고, 참가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약 9주간 진행되는 경진대회 기간 참여자가 모빌리티 연구개발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실무진의 직무 멘토링과 남양연구소 현장투어를 제공하고, 참여자의 역량 향상과 실효성 있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AI, 빅데이터 분야 전문 교수진의 정기 코칭을 지원한다.

프로젝트 종료 후에는 'AI 경진대회 활동 증명서'를 발급하고, 유관부문 입사지원 시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력개발을 도울 방침이다.

현대차·기아는 AI 경진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6일까지 참가자 접수를 받는다. 서류접수 후에는 간단한 코딩테스트로 최종 참가자를 선발한다.

또 최종 선발된 참가자에게는 월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우수 팀으로 선정 시에는 별도의 시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학생 참가자는 이번 AI 경진대회를 통해 실무경험과 경력개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 활동이 채용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13기 발대식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대학생 홍보대사 13기 발대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13기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는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생 30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11월까지 광주은행 ESG공헌활동과 브랜드 홍보, 유스(Youth) 고객과의 소통,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광주은행의 새로운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선발된 대학생 홍보대사에게는 매월 소정의 활동비와 단체복이 지급되며, 우수 팀 및 홍보대사 포상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탄탄한 기본을 갖춘 역동적인 강소은행으로서 지역민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창조적이면서 협동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 지역인재로서의 대학생 홍보대사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활동이 단순히 대외활동의 축적이 아닌 광주은행만의 스토리가 있는 금융서비스를 알리고 지역사회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본인 스스로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MZ세대 "바늘구멍이라도 대기업 갈래"

대기업 64.3%·공기업 44%…중기 15.7% 그쳐
낮은 처우·워라밸 어려움 등 이유 중기는 구인난

대한상의, 청년세대 직장 선호도 조사

고용 한파로 청년 구직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청년들은 여전히 대기업·공공기관 위주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청년 구직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세대 직장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호 직장(복수응답)은 대기업(64.3%), 공공부문(44.0%), 중견기업(36.0%) 순이었다. 중소기업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5.7%에 그쳤다.

이 같은 대기업·공공부문 선호 현상은 일자리 불일치(미스매치)를 고착화하고, 청년층 일자리 사정을 더 어둡게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적극적 구인 활동에도 채용을 못 한 미충원 인원이 18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이는 대부분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93.7%)에서 발생했다.

반면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만2000명 감소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선호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생각(복수응답)을 묻자, 업무량 대비 낮은 처우(63.3%),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어려움(45.3%), 불투명한 미래성장(43.7%), 낮은 고용안정성 우려(39.3%),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37.0%) 등의 순으로 답했다.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복수응답)으로는 임금과 복지수준(86.7%)을 꼽았다.

이어 워라밸(70.0%), 안전성·업무강도 등 근무환경(65.7%), 고용안정성(57.0%), 기업위치(44.0%) 등의 순이었다.

신입사원 희망 초봉은 3000만~3500만원(39.0%)이 가장 많았고, 3000만원 미만(20.0%), 3500만~4000만원(19.0%), 4000만~4500만원(11.0%)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대기업 생산직 채용에 수만명의 청년 지원자가 몰린 이유(복수응답)도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 때문이라는 응답(71.7%)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절반은 청년일자리 문제가 해소되려면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46.7%·복수응답)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혼란 생각해달라"

경제6단체, 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요청

경제계가 24일 야당의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의결에 대해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시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경제6단체는 "국내의 자동차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국내 기업의 투자뿐 아니라 해외 기업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67.45(-0.10)
↓	코스닥	855.46(-3.70)
↑	금리 (국고채 3년)	3.378(+0.005)
↑	환율 (USD)	1317.40(+4.70)

광주 비아농협,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광주 비아농협은 예취기와 분무기, 전동공구 등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광주 비아농협은 매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통해 소형 농기계와 노후화된 예취기를 대상으로 구입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농업인의 실익 증진을 위한 208대의 노후화된 소형 농기계를 신형 농기계로 교체구입 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광주 비아농협은 농업인의 실익 증진을 위하여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했으며,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 예방활동 및 재해보험 가입 지원 등을 실시해 농업인의 실익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